



“남극체험하세요” 기획의 땅 남극에 가다라는 주제의 2011년 남극체험 순회전시회(주최 한국극지연구소 주최)가 광주시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21일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 보고 있다. 이 행사는 오는 5월20일까지 계속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우치동물원 최고 인기 스타는 코디악 불곰·빠삐용 원숭이



허리춤 잘추는 코디악 불곰



탈출의 명수 빠삐용 원숭이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광주 우치동물원 최장수 동물인 ‘코디악 불곰’(Kodiak Bear·암컷)과 재롱둥이 ‘빠삐용 원숭이’가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21일 우치동물원에 따르면 해양동물사(99.1m²)에서 홀로 생활 중인 코디악 불곰의 나이는 45세. 코디악 불곰은 지난 1992년 5월 4일 우치동물원 개원 이전인 광주 사자동물원 시절부터 동물원을 즐겁게 지켜온 안방 마님이자 최고 어른(?)이다. 키 2.8m, 몸무게 600kg인 코디악 불곰이 최고의 인기 스타라 떠오른 이유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관람객들에게 멋진 춤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코디악 불곰의 매력은 다름 아닌 허리춤. 바로 선 상태에서 양팔을 앞으로 내민 뒤 좌·우로 가로 저으며 허리춤을 추는데, 이를 본 관람객들은 허리춤을 멈출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한다. 낙천적인 성격이 장수의 비결이다. 일반 코디악 불곰 수명이 야생에서 30~35년인 것을 감안하면 장수한 셈이다. 사람 나이로 따지면 80~90세. 일본 원숭이 남매의 인기도 대단하다. 이들의 특기는 탈출. 옆집에 사는 8년생 ‘돼지꼬리 원숭이’가 8cm 간격의 쇠창살 틈새로 우리를 탈출, 관람객들이 주는 과일이나 과자 등을 받아먹는 모습을 목격하면서부터다. 이후 빠삐용 남매는 한 손으로 쇠창살 붙잡고, 또 다른 손으로 관람객들이 주는 먹이감을 받아 먹기 시작했다. 한편 올들어 지난 17일 현재 우치동물원을 방문한 관람객 수는 12만 5027명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53분 해질 19시 10분 달뜨기 23시 51분 달지기 08시 56분

요란스런 비
천둥과 번개·돌풍을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다.

광주	흐리고비	12/15°C
목포	흐리고비	12/15°C
여수	흐리고비	12/14°C
나주	흐리고비	12/16°C
완도	흐리고비	12/15°C
구례	흐리고비	11/15°C
해남	흐리고비	12/15°C
장흥	흐리고비	12/15°C
순천	흐리고비	12/15°C
영광	흐리고비	11/15°C
진도	흐리고비	12/15°C
군산	흐리고비	10/13°C
남원	흐리고비	11/15°C
옥산도	흐리고비	9/13°C

기상안전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바다	중랑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꽃가루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1.0~2.0m	보통	주의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5~2.5m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1.5~2.5m	목포	05:10	10:14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2.0~3.0m	여수	17:03	22:13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5~2.5m		11:39	05:47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2.0~3.0m		--:--	17:41

국립공원의 야생화

진한 향기로 나그네 발길 잡는 꽃

3) 길마가지

산기슭이나 골짜기에서 3m 정도 자라는 길마가지는 어린가지에 갈색의 털이 나고, 타원형 잎이 마주난다. 2개의 모여 나는 흰색 꽃은 4월에 잎과 함께 피어 밑을 향해 달리는데, 꽃받침 아래가 붙어 있고, 1개의 열매를 맺는다. 향기가 너무 좋아 나그네의 길을 막아 이를 붙여졌다고 이야기가 할 만큼 향이 좋다. 열매모양이 길마가지와 비슷해 ‘길마가지 나무’에서 ‘길마가지 나무’로 변했다. (백산배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수과장)

고흥 녹동항 카페리 오르던 차 바다 추락사고 ‘동승자 하차’ 규정 안 지켜졌다

고흥경찰, 주차요원 조사... 처벌조항 없어 논란

최근 고흥 녹동항에서 발생한 여객선(차도선) 승용차 추락 사망사고(광주일보 4월 18일 6면)는 운항관리규정을 위반한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운항관리규정을 어기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승객이 차량과 함께 승선하는 카페리 노선이 급증하고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이용객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전대책 강화가 시급하다. 21일 고흥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고흥군 도양읍 녹동항 여객선터미널에서 평화페리3호에 오르려다가 추락한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각각 진모(65)씨와 또 다른 진모(75)씨가 타고 있었다. 2명은 모 두 사망했다. 하지만 여수해양경찰이 맡아 심의·의결한 ‘평화호 운항관리규정’에는 차량 운전자 이외의 승객은 하차 조치 후 승·하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동승자 사망 책임을 놓고 향후 공방이 예상된다. 규정에 따라 주차요원들이 조수석에 동승한 70대 진모씨를 하차하도록 했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흥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평화호의 선장과 당시 현장에서 차량을 유도했던 주차요원 등을 참고인 형식으로 불러 ▲주차 유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운전자와 함께 70대 진씨가 조수석에 탄 상태에서 주차 유도가 이뤄진 이유 등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해운법은 사고의 ‘원인’이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과실, 주의의무 태만일 때만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운항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이 빠져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사고의 원인이 운전 미숙 등으로 밝혀질 경우 사업자는 운항관리규정을 어겼더라도 사실상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운항을 계속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고흥경찰 관계자는 “아직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나 당시 상황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목적지의 진출과 평화호 관계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정년초과 사립 교장 인건비 중단”

전남도교육청 검토

전남도교육청은 21일 “정년을 초과한 뒤에도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유예기간 뒤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1일 오후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교육행정 질문답변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박병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박 의원의 “사립학교 설립자 교장의 경우 정년이 없어 길게는 13년을 초과해 재직하고 있는데 보수가 계속 지급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며 사립학교 근무교사들의 승진기회까지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서울 종로점 OPEN

[국제보청기]
서울 종로점을 4월5일 개점하였습니다!

지방에서 보청기 사용중 불편사항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이연안과 옆)

총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중앙시장 앞)

목포점 061-262-9200

59주년 1952-2011

스마트한 바로 지금! 세상이 열린다!

ALL-IN-ONE SERVICE (올인원서비스)

오프라인 지면광고에 수록된 QR코드를 이용하여 모바일페이지에 바로 접속하고 또한 번외정보 어플을 통하여 번외정보 검색이 가능한 효과적인 홍보방법으로 고객의 매출을 극대화하는 한국전 화변호부의 새로운 온,오프라인 통합서비스입니다.

올인원 서비스 상담 문의 : (062) 514-1144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세요!

한국전화번호부주식회사
KOREA TELEPHONE DIRECTORY CO., LTD.